

# 04

##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의 개척기

### 근로보건관리규칙, 제정이 필요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 공포되었는데, 제6장에서 유해물 취급, 안전위생교육, 질병자의 취업금지, 건강진단 조항과 함께 일정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산업보건에 관한 근로보건관리규칙이 마련된 것은 1961년 9월이었고, 시행세칙이 마련된 것은 1962년 1월이었다.

근로관리보건규칙이 제정되기 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배치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72조 1항에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과 2항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 또는 그들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을 뿐이었다.

### 보건관리자 선임규정, 변화의 시작

이후 법 세부내용이 정해지면서 사업장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규모

가 정해졌고, 이들의 자격과 직무가 법으로 규정되었다. 즉 보건관리자는 ‘의사로서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보건관리요원은 ‘의료업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기타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로 보건의료기관이나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위생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한정되었고, 한의사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산업보건 훈련을 받은 사람도 없었고, 자격을 가진 의료요원도 없었던 형편으로, 이 정도의 세칙도 무리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평가였다.

## 훈련의 체계화 완료

1969년, 보건관리 훈련규정이 바뀌었다. 훈령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훈련기관 지정이 국립보건원장에서 ‘노동청장 또는 노동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바뀌면서 보건관리 훈련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제3조에서 훈련의 종류와 과목이 세부적으로 정해지면서 교육의 체계가 갖추어졌다.

훈련 종류는 위생관리, 보건간호, 직업병관리로 구분되었다. 훈련과목은 보건행정, 보건통계, 역학, 환경위생, 전염병관리, 질병관리, 보건교육, 건강관리, 노동법규, 사회학, 산업생리학, 재해상해관리, 직업병, 작업환경측정법, 적성검사로 정해졌고, 근로자 건강관리는 별도의 항목으로 정했다.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요원의 자격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위의 3가지 훈련 종류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았고, 2년마다 재교육이 실시되었다.

## “당시 인적자원이 얼마나 모자랐던지...”

이들 과목을 보면 강의 내용을 편집하기 나름이겠지만 높은 수준이라 여겨지는데 시행세칙에 나와 있는 보건관리요원이 될 수 있는 자의 규정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종합병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위생실무에 종사한 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에게는 아무리 2개월간의 교육이라 하더라도 수준이 맞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교 경력자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25~6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당시 얼마나 인적 자원이 모자랐던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 또 이것은 바로 산업보건사업이 얼마나 어려웠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이광목, 「한국 산업위생의 뿌리와 가지」, 한국산업위생학회

##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의 중심에 서다

1962년 가톨릭산업의학연구소가 발족한 후, 당시 연구소 소장이었던 조규상 교수가 보건관리자 교육에 참석하여 강의를 맡은 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주관한 제2회 사업장 보건관리자 훈련이었다. 경기도 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1962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의 특강이었다. 그리고 1963년부터 가톨릭산업의학연구소 소속 교수들이 교육훈련에 출강하였다.

1967년 보건관리자 보수교육이 보사부에서 노동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던 교육이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주관하게 되었는데, 협회 내에 ‘교육훈련부’를 신설하고 초대 부장에 이태준 교수(당시 가톨릭대학 의학부에 재직)를 임명했다. 교육장소는 명동성당 부속 문화관(당시 대학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이용되었으며, 모든 실습기자재는 가톨릭산업의학연구소 장비를 사용하였다. 당시에는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기관이 받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어서 외국의 원조와 국고보조로 비용을 충당했다. 이후 1969년 훈련규정이 바뀌어 훈련기관에서 소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그때까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동안 420명의 보건관리자와 1,056명의 보건요원을 훈련했다.

비용적으로 수지를 맞추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산업보건에 대한 열정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설립하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산업보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로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철학을 가졌던 대한산업보건협회로서도 분명한 호재였다. ☺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속 훈련원이 실시한 제1기 보건관리자교육 수료식(1964)

